

# 금강농협 봉사와 나눔의 미덕 실천

##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및 다문화가정 김장문화 체험' 행사

금강농협(조합장 최학철)과 금강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함필정)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및 다문화가정 김장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봉사과 나눔의 미덕을 실천했다.

고성종합체육관 식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회원과 다문화여성 등 80여명이 참가, 휴경기에서 경작해 수확한 배추와 무로 700여 포기의 김장을 담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고성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우리나라 고

유의 음식 문화인 '김장 담그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함필정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매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참석해주는 회원들과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불우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학철 금강농협 조합장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을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농협이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금강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과 다문화여성들이 사랑의 김장김치를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축협 교류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 고성축협 진주축협과 자매결연 협약

고성축협(조합장 전상복)과 진주축협은 지난 1일 썬밸리리조트 에머랄드홀에서 고성·진주축협장 및 임직원과 농협중앙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경과보고, 협약체결, 협약패전달, 도농 상생자금지원,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상복 고성축협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다각적인 사업활성화와 교류확대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류축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 개업집

### 고성축협 맞은편 '병나발'

## 담소 나누며 술 한잔 ... 연중 이벤트 마련

간성을 소재 고성축협 맞은편 2층에 위치한 주점 병나발이 지난 11일 개업했다.

2011년 11월 11일 밀레니엄 빼빼로데이에 맞춰 개업한 병나발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상호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5평의 규모에 테이블 6개를 갖춘 병나발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조명으로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하며 술 한잔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병나발에서는 이미 조리된 음식을 유통 과정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안주로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직접 구입해 손질하여 조리까지 한다고 한다.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바로 조리해 만들어 뛰어난 맛을 자랑하

며, 유통과정을 줄이고 마진을 줄여 값싸게 안주를 제공한다. 또 안주가 나오기 전까지 해물뚝배기 등의 3가지 요리가 밑반찬으로 나온다.

병나발에서는 특히 다양한 이벤트를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당일 스무번 짜로 입장한 손님에게 생활용품과 상품 등을 증정



병나발 김권유 대표는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값싸고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고 있고, 년센스퀴즈 맞추기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선물과 안주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이벤트는 연중무휴다.

병나발 김권유 대표(26세)는 "현재 진행중인 이벤트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손님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값싸고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병나발의 대표메뉴로는 우동닭갈비, 무빠 닭발구이, 매운족발볶음 등이 있으며, 과메기, 도치알탕 등 계절메뉴와 튀김류, 마른안주, 과일, 찌개류 등이 있다.

가격은 6천원대부터 1만3천원대까지 저렴하게 마련돼 있으며 영업시간은 평일 저녁 6시~새벽 2시, 주말 저녁 6시~새벽 4시까지이다. <전화 681-1832>

원광연 기자

경조사·모임·구인·구직·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정보  
접수방법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핸드폰 문자 010-2022-2633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